

한국에서의 기업실사

한국은 고도로 산업화된 경제가 상호 긴밀한 정치 및 사업 지도층 엘리트들과 융합되어 있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규제 요인이 도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OECD 회원국이자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인수 사전작업 또는 반부패 기업실사에 착수한 기업들의 복잡한 업무 및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패 및 투명성 수준

2010 년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한국은 모리셔스와 공동 39 위를 차지하며 아랍에미리트(28 위), 대만(33 위), 부탄(36 위) 및 브루나이(38 위)보다 부패한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되는 부패가 적다고 평가되는 기준이 적용되어 한국은 10 점 만점에서 낮은 수준인 5.4 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09 년도의 5.5 점에서 하락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6.97 점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성장 부진 및 부패인식지수의 하락을 야기한 요인 중 하나로 2008 년 탈세 유죄 선고를 받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비자금을 사용하여 영향력 있는 정부 관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2008 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비자금 스캔들이 발단이 되어 이건희 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하였으나, 현재는 삼성의 총수로 다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시한 다른 사안에는 공무원 조직 내 연고자 등록 및 부패 공무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 년 6 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및 아시아태평양 그룹은 한국을 FATF 후보 회원국으로 간주하고 한국 내 반자금세탁 및 반테러 금융 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한국 금융기관 내 준법감시(compliance) 문화는 매우 강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반면, “수혜대상 소유자, 주요 정치 인물 및 관련 은행업무와 같은 사안들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한국의 부족한 집행능력을 비판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용 가능한 벌금이 충분히 효과적이거나 적절하지 않고 위반을 단념시킬만한 설득력이 부족하며, 자금세탁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 개인 및 회사 실사

부패인식지수(CPI) 수치 및 등급 산정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이 비판을 받아온 반면, 국제기구 및 기업체들은 여전히 국가별 부패 리스크 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부패인식지수를 벤치마크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 순위를 매기지만, 민간부문의 부패 또는 투명성 수준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실사를 실시하려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려로 작용하는 요소는 특히 한국 민간기업의 개별 임원 공개 및 최종 수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간부문의 높은 부패 수준 및 기업 투명성의 결여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에서 다뤄진 내용이나
당사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an Barclay
ibarclay@billiterpartners.com

Hyun Ah Kim
hkim@billiterpartners.com

Helen Symonds
hsymonds@billiterpartners.com

22nd Floor,
69 Jervois Street
Hong Kong
+852 2851 1400

60 Lombard Street
London, EC3V 9EA
+ 44 20 7236 8070

40 Wall Street, 28th Floor
New York, NY 10005
+ 1 212 400 7213

한국에서의 기업실사

상업적인 목적을 갖는 기업실사이든, 미국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과 같은 반부패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기업실사이든, 이러한 정보 부족 현상으로 인해 한국기업에 대한 실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원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별 이사직을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회사 또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개별 임원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나 직위를 파악하는 작업이 훨씬 복잡하며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조사관 또는 리서치 전문가가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는 한국 내 데이터베이스, 공공 등기소 및 정부기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포괄적인 실사 확인은 불가능하며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중요한 배경 정보는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 정보를 입수하여 법원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한국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관련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과거 민사소송에 연루된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 소송관련 조사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과거 부패 사례뿐만 아니라 상대 회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지 또는 허가된 개인의 목록을 관리하는 관련 규제 또는 감독 당국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아시아 내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전 인수 또는 반부패 기업실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검색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미루어 볼 때, 사내 법률 및 준법감시팀에 내부적으로 한국 전문지식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기업실사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Billiter와 같은 전문 기업실사 제공자를 통해 기업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부패를 척결하고 개인 사생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상업적인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은 싱가포르 및 홍콩과 같은 다른 아시아 선진경제국들처럼 한국 정부도 대법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개별 임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업적인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CPI 순위 상승과 FATF 회원국 가입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벌 부패

흔히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잘 알려진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 안도감을 갖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벌(Chaebol)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여기에는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LG, 삼성, 대우 및 현대와 같이 잘 알려진 이름이 포함됩니다. 재벌은 한국어로, “기업가 집안” 및 “독점”으로 해석되며, 다양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 보유를 통해 사업 그룹화를 거쳐 경제 영역을 넘어 한국 정치 영역에까지 그 세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 국회의원이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준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축구협회(FIFA)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재벌의 세력은 한국 경제 곳곳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공급자, 배포자, 주주 또는 가족 관계로 재벌과 얽혀있습니다. 재벌과의 연결고리와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기업실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명성 부족과 정보 입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이 정치와 사업 간 주요 연결고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벌의 입장에서는 서구의 사업 파트너들이 주요 상업적인 관계를 확립하기 전에 강화된 기업실사를 실시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있는 재벌의 주요 자회사들이 영국의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같은 새로운 법률 및 강화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기업실사

한국 기업 인수 및 감독

한국 기업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고 한국 자회사 또는 합작투자 파트너의 지속적인 반부패법 준수를 보장하는데 따르는 문제점들은 Tyco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006 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Tyco International Ltd 를 상대로 재무결과를 과대 보고하여 연방증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SEC 는 또한 Tyco 가 한국의 화재보호서비스회사인 (주)동방 산업의 인수와 관련하여 FCPA 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동방 산업에 대한 기업실사는 정부 관료에 대한 불법 로비 행위가 한국에선 사업 체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행이라고 강조했지만, SEC 는 Tyco 가 전사에 걸쳐 통일된 FCPA 준수 프로그램이나 전 세계에 분포된 사업체에 FCPA 부정행위를 감지 및 방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에 뒤이어 동방산업의 임원진들은 건설교통부 장관 및 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사업 획득을 위해 국영 발전소 직원에게 한차례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Tyco 의 경우, 미국 당국이 브라질 및 한국 내 사업체에서 부정행위 및 부적당함을 적발하였습니다.

2011 년 3 월, IBM 은 자회사와 과반주식소유 합작투자회사가 정부 관료에 대한 부적절한 여행 및 향응을 비롯한 현금 및 선물 제공 혐의를 받을 당시, FCPA 위반 행위로 인해 SEC 가 제기한 민사 기소에서 벗어난 사건은 한국의 FCPA 리스크가 부각된 또 다른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보다 최근에는 SEC 가 한국 디아지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되었으며, 2011 년 5 월, 인천지방검찰청은 한국의 FCPA 격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에 근거하여 두 한국 기업의 대표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최초로 중국 기업체가 개입된 국내 기소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는 한국의 법률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중국 국영 항공사의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얼마나 많은 다른 국내 및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외관상으로도 부패하고 어려운 기업실사 환경에서 한국 및 미국 당국의 주목을 받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illiter Partners

Billiter Partners 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및 준법감시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Billiter 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전 업종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며 각 개별 사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 제작된 준법감시 실사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여 당사의 고객이 FCPA 및 영국 부패방지법의 조항을 비롯하여 여러 기타 국내 반부패법과 규칙에 근거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사의 홍콩 및 런던 리서치팀은 한국어 전담 리서치 인력 및 한국 기업실사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0 Lombard Street, London EC3V 9EA
22nd Floor, 69 Jervois Street, Hong Kong
40 Wall Street, 28th Floor, New York, NY 10005
www.billiterpartners.com

+ 44 20 7236 8070
+ 852 2851 1400
+ 1 212 400 7213
contact@billiterpartners.com

Disclaimer of Liability This client memorandum does not necessarily deal with every important topic or cover every aspect of the topics with which it deals. It is not designed to provide legal or other advice. Al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from sources which Billiter Partners Limited believes to be reliable. As a result, the information in this client memorandum is provided "as is" without any representation or warranty of any kind. Billiter Partners Limited can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r otherwise of any statement given. Billiter Partners Limited disclaims all liability for the accuracy, completeness, currency or lawfulness of any information originating from Internet sites, press and public sources which make up this repor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Neither this client memorandum nor any copy of part thereof may be distributed in any other jurisdictions where its distribution may be restricted by law and persons into whose possession this document comes should inform themselves about, and observe any such restrictions. © Billiter Partners Limited 2011